

'눈먼 돈' 인식·솜방망이 처벌 범죄 불러

광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뿌리뽑자
틈 왜 끊이지 않나

2016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9.7% 증가한 것으로,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역대 최고액이다. 연도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지난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년 6549억원 등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인당 평균 보험사기금액도 지난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 등 증가세다.

특히 지난해 지급보험금(환급금, 배당금 제외) 39조4000억원에 이르는 점에서 적발하지 못한 보험사기 금액까지 더한다면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보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게 손해보험협회의 추정이다.

또 적발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 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 사기금액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5만8044명으로 전년대비 2172명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노령층은 1만1231명으로 전년대비 930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60대 이상에서

지난해 7185억...피해액 최고
과다인원 등 60대 이상 증가세
지역형 20%...사기범 절반수준

는 허위 과다 입원, 질병 등 병원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보험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으로서는 죄의식 결여와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 등을 꼽는다.

살인이나 강도, 절도 등은 피해를 입는 직접적인 상대가 있는 반면 보험사기의 경우 자신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불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해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기존보다 높은 처벌 수위를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사기를 적발하고도 신속한 인력과 예산 등이 부족하다 보니 제도 자체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선진국들은 형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특별법에서도 보험사기행위를 '보험사기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단순하게 정의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보험사기는 양형도 일반 사기에 비해 약한 편이다. 실제 한국형사정책

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보험 사기범의 징역형 선고 비율은 20.8%로 일반 사기범의 절반 수준이다. 이와 함께 일반사기는 그 피해자가 그대로 드러나지만, 보험사기는 등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피해자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 등의 피해를 입게 되지만, 보험사나 보험공단이 피해자로 인식되면서 보험 사기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이 희석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1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죄의식 없이 '보험금을 좀 부풀려 받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은 '눈 먼 돈'이 아닌 자신과 가족은 물론 내 이웃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의식적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북구보건소 시내버스 운전기사 건강검진. 광주 북구보건소 직원들이 1일 북구 장동동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혈압을 측정하고 있다. 북구보건소는 이날 시내버스 사교예방차원에서 운전기사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2 해질 19:35 월출 15:10 월몰 01:09

기미술 더위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세요.

◇지역별 날씨 (℃)

광주	25/35	보성	구름 많음	23/34
목포	26/33	순천	가름 흐림	25/34
여수	25/32	영광	구름 많음	25/34
나주	25/35	진도	구름 많음	25/33
완도	25/32	전주	구름 많음	26/34
구례	24/34	군산	구름 많음	25/33
강진	24/33	남원	구름 많음	24/34
해남	25/33	축산도	구름 많음	23/29
장성	25/33			

◇바다 날씨

지역	종량	파고(m)	종량	파고(m)	
서해	알바다	동~남동	0.5~1.0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	동~남동	1.0~2.5	동~남동	1.0~2.5
남해	알바다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서부	면바다(동)	북동~동	1.5~2.5	북동~동	1.5~2.5
	면바다(서)	북동~동	1.0~2.5	북동~동	1.0~2.5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3:23	09:20
	15:27	22:39
여수	간조	만조
	10:50	04:29
	—:—	18:14

◇주간 날씨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	☀	☀	☀	☁	☀	☀
25/34	25/34	25/34	25/34	25/33	25/32	25/32

◇생활지수

- 식중독: 위험
- 자외선: 매우 높음
- 피부질환: 높음

고령 심방세동 환자 93% 뇌졸중 위험 전남대병원 동구 60대 이상 검사...환자 70% 이상 발병 몰라

60세 이상 심방세동 환자의 93%가 뇌졸중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남대학교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 동구 거주 60세 이상 주민 2422명을 대상으로 심방세동 선별검사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일 밝혔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제대로 수축하지 못해 불규칙한 맥박이 나타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고혈압·심부전·판막질환 등이 동반되며 뇌졸중 발병 가능성이 5배나 증가하는 질환이다.

정상맥박은 1분 기준 60~100회 뛰는 데 이보다 빠르면 '빈맥', 느리면 '서맥', 빠르면서 불규칙하면 '심방세동'으로 본다.

총 4단계로 세밀하게 진행된 이번 검사에서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주민은 모두 73명(남성 34명·여성 39명)이었다.

이들 중 93.2%(68명)가 뇌졸중 위험도 검사(CHA2DS2-VASc 점수)에서 '높음(2점 이상)'으로 나타나 심방세동이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이 입증됐다.

또 심방세동 진단자 10명 중 7명(68.5%)은 자신이 심방세동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센터 연구진은 심방세동의 증세가 뚜렷하지 않은데다 2008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질환 인지율과 조기발견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는 검사자 462명 중 5명인 1.1%가 심방세동 진단을 받았으며 70대 2.8%(1306명 중 36명), 80대 이상 4.9%(654명 중 32명)로 고령일수록 심방세동 발생률이 높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측은 심방세동 진단자들을 대상으로 소집단교육을 했고 이후 교육 환자 중 82%가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번 사업을 총괄한 신민호 전남대병원 예방관리센터장은 "이번 검사는 심방세동의 조기발견 및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심방세동 교육 및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장인 김주환 순환기내과 교수는 "이번 검사를 통해 심방세동 인지율이 낮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며 "이유없이 가슴이 두근거릴 경우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방세동은 발작성 심방세동과 만성 심방세동으로 구분된다. 가슴이 두근거려거나 답답하고, 심하면 어지럽고 숨이 차는 증세가 나타난다.

센터 연구진은 심방세동의 증세가 뚜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고검장·지검장 취임 인터뷰

"인권보호 최우선...국민검찰 될 것"

김호철 광주고검장

김호철(50·사법연수원 20기) 제46대 광주고등검찰청검사장(이하 고검장)은 1일 "검찰은 지금 '관행을 벗고 과감하게 쇄신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다"면서 "(광주고검)직원들과 함께 투명하고 바른 검찰을 만드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 고검장은 이날 오전 광주검찰청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롭고 올바른 검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큰 지금, 광주고검장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고검장은 "(광주고검 직원들이) 헌법까지 수호와 법질서 확립에 혼신의 힘을 다했으면 한다"면서 "특히 헌법가치를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검찰 고유의 기본적인 임무로,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또 "일상의 검찰 업무 속에

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뒤야 한다"면서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법적인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을 지키는 국민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이와 함께 "부정부패와 사회구조적인 비리척결을 통해 나라다운 나라 공경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한다"며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검찰권 행사 시 항상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고검장은 "어려울 때일수록 상호간 인화가 중요하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겸손한 자세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검찰의 구성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고검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 영등포구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고향서 중책...수사 '신사도' 지키겠다"

양부남 광주지검장

양부남(55·사법연수원 22기) 제61대 광주지방법검찰청검사장(이하 지검장)은 1일 오전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개혁과 변화의 요구가 높은 시기에 광주지검장을 맡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양 지검장은 "1993년에 검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년 연초만 되면 '검찰이 위기에 처했다'는 말을 들었고 올해도 마찬가지다. 다만, 올해는 검찰이 처한 상황이 더 어느 해보다 더 하다"면서 "이 같은 위기를 위기로만 느끼면 발전이 없다. (광주지검 직원들은)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검장은 특히 "사건 처리는 지연 없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수사에 있어서는 '신사도'를 잃지 않는 광주지검이 됐으면 한다"면서 "검찰의 '신사도'는 1차 수사에서 실패했을 때 다른 혐의점을 찾기 위한 마구잡이식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과감히 실패를 인정하고 돌아설 줄 아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검사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 지검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도 "광주지검에서 지난 91년 시보를 시작해 평검사와 부부장, 부장, 광주고검 차장에 이어 지검장으로 오게 됐다"며 광주지검과의 깊은 인연을 소개했다.

담양출신으로 전남대학교를 졸업한 양 지검장은 "고향에서 중책을 맡게 돼 심적인 부담은 크지만, 지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내겠다"면서 "특히 약자의 권익보호와 병폐를 해소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광주지검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 지검장은 감양군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전남대학교 출신으로는 두 번째로 검사장에 이어 광주지검장에도 이름을 올려 지역민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방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시물, 모방물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